

책 읽는 것이 즐거운 의무인 공간

회원제 서점 '프랑스 루와지르(France Loisirs)'

최연구

《한겨레21》 파리 통신원

이번에는 쇼핑거리로 유명한 파리 14구의 알레지아 거리에 있는 좀 특이한 서점을 찾아가 보았다. '프랑스 루와지르'라는 이름의 이 서점은 전국적 조직망으로 14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리에만도 9개나 되는 매장이 있다. 분명 책을 파는 곳이지만 아무나 책을 살 수 있는 대중서점은 아니다. 또한 아무 책이나 파는 곳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 엄선된 양서만을 판매하는 곳이다. 이 알쏭달쏭한 서점, 프랑스 루와지르(여가, 레저라는 뜻)는 바로 독서애호가들의 회원제 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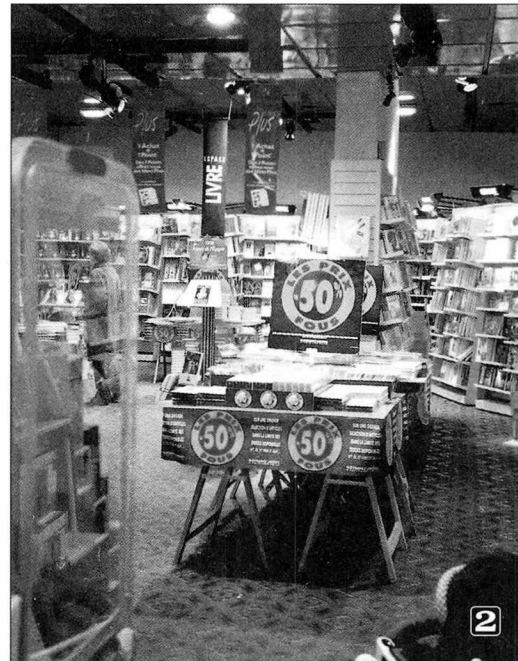
엄선된 양서, 독자적 판형의 책으로 판매

프랑스 루와지르는 전국 각지에 수십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서점이라기보다는 도서 통신판매 조직이었다. 회원이 되면 3개월마다 한번씩 신간 도서목록을 받게 되고 그중에서 한권 이상을 주문해서 사면 되는데, 이런 통신판매보다 직접 나와서 책을 훑어보고 고르려는 회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 도처에 널려 있는 이 매장들이다. 회원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다. 누구나 회원가입 양식에 서명만 하면 된다.

처음 가입할 때 자신이 고른 5권 정도의 책을 가입선물로 받고 나면 2년 동안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1권씩의 책을 사면 된다. 이것이 프랑스 루와지르 클럽의 운영원리이다. 회원제로 운영되므로 한정된 고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현재 회원만도 5백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점매장에 들어가보면 늘 고객들이 붐벼 회원제 서점이라는 인상을 좀체로 가질 수가 없다. 게다가 최신 베스트셀러에다 다양한 주제의 갖가지 책들을 갖추고 있어 어느 일반서점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다. 시중에서 파는 베스트셀러를 여기에서도 똑같이 팔고 있지만 같은 판형이 아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모든 서적은 프랑스 루와지르에서 독자적인 판형으로 찍은 재판(再版) 서적들이다. 프랑스 루와지르의 도서선정위원회는 이미 출간된 책들 중, 양서를 선정하고 그 책을 낸 출판사와 독점계약을 맺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회원들에게만 판매하는



프랑스 루와지르는 회원확장의 전략이 특이하다. 2년간 회원이 되는 조건으로 5권의 책을 무료로 주는데, 회원은 2년 동안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한권씩 책을 사면 된다. 고객이 한정돼 있을 것 같지만 현재 회원이 5백만명에 이르고 프랑스에서 출간되는 문예물의 8% 이상이 이 곳을 통해 판매된다.



1 파리 14구의 알레지아 거리에 있는 프랑스 루와지르 서점. 2 세일 기간 중에는 재고도서·CD·카세트 등을 50% 할인판매한다. 3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진열대에는 사전류·생활도서·요리 등 주제별로 잘 분류돼 있다.

특별판을 따로 찍는 것이다. 대부분 하드커버 장정으로 단정하게 재편집해서 내지만, 오히려 시중에서 판매되는 원판보다 5%~10% 가량 더 싸게 판매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항상 5백만명대에 이르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프랑스 루와지르의 성공비결이다.

핑먹고 알먹는 회원들의 혜택조건

프랑스 루와지르는 회원확장 전략이 특이하다. 지극히 상업적이긴 하지만 독자에게도 큰 이득이므로 전혀 기분 나쁘지가 않다. 우선 각종 잡지를 통해 회원가입 양식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책의 목록을 대대적으로 광고한다. 2년간 회원이 되는 조건으로 5권의 책을 무료로 준다는 것이다. 책값이 비싼 프랑스에서 5권이면 가격으로 5~6백프랑

(약 15만원상당)어치는 족히 된다.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책 중에는 한국어로 치면 이희승 국어대사전쯤에 해당하는 로베르 불어사전도 있고 《소피의 세계》 같은 베스트셀러 소설도 있어 독자의 흥미를 당기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회원이 되면 선물도 받고 프랑스 루와지르 회원으로서의 갖가지 특전도 누릴 수 있어 말 그대로 핑 먹고 알먹기이다. 프랑스 루와지르의 회원이 되면 우선 전국의 직영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회원으로서의 특전은 그 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루와지르에서는 책 뿐만 아니라 CD나 음악 카세트, 사진용품, 유아용 장난감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주부들의 알뜰살림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사진현상 및 인화도 싼 가격에 맡길 수 있다. 또한 매년 열리는 '살롱 드 리브르'(파리도서전시회) 초대권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특전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 루와지르의 매장에 들어서면 일단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진열대가 인상적이다. 문학부문 특히 소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역사·문화·사회분야 도서도 주제별로 잘 분류되어 있다. 사회학 사전이나 심리학 사전 같은 전문분야의 사전뿐 아니라 세계 연대기, 아세트 불어사전, 불어철자사전, 문법사전 등 다양한 사전들도 취급하고 있다. 회원들 중 특히 주부들이 많아 서인지 요리책이나 집안 가꾸기, 실내장식, 뜨개질, 십자수 책 등 일상생활 관련의 실용

21세기 비트문화의 총아 웹진

컴퓨터서적의 최신정보 ZDNET와 O' Reilly 사이트

이은택 · 월간 《How PC》 기자

서적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점도 이 서점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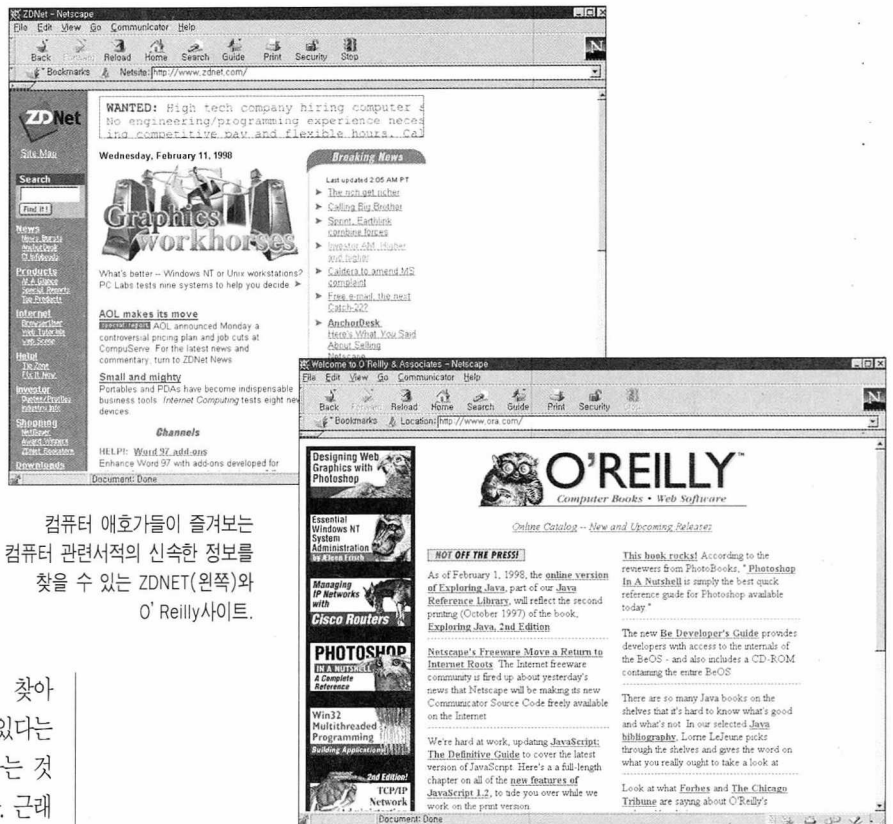
프랑스 루와지르는 외국의 양서들도 독점 계약을 통해 번역출간하고 있다. 출판사와 서점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에서는 여름과 겨울철의 대대적인 정기세일이 연중 큰 행사인데, 프랑스 루와지르도 이 할인행사에 참여한다. 재고도서나 사진필름, 공테이프 등을 50%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프랑스 루와지르 회원들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

4백만명이 넘는 회원에 연간 8천억원 매출

사실 이 프랑스 루와지르는 순수한 프랑스 자본이 아니다. 1970년에 유럽 최대이며 세계 제2위의 거대 언론매체 제법인 독일의 베르텔스만 그룹과 프랑스 최대의 언론 출판그룹 라시테가 50 대 50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프랑스 독일 합작회사이다. 이런 류의 회원제 서점으로는 최초이며, 또한 서적 통신판매사업의 선구자였던 프랑스 루와지르는 독서계의 호응 속에서 지난 4반세기 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다. 1992년에 이미 회원 430만명을 돌파했고, 연간 매출은 92년 기준으로 27억 프랑(약 8천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프랑스 루와지르는 문학서적 부문에서 8%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4백만명 이상의 회원들이 매년 프랑스에서 출간되는 문예물의 8% 이상을 프랑스 루와지르를 통해 사고 있다는 이야기다.

'책 읽는 것이 즐거운 클럽'이라는 프랑스 루와지르의 모토는 분명 빈말이 아닌 성실하다. 프랑스 루와지르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프랑스인들의 독서에 대한 애정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이 되면 3개월에 한 권을 사야 한다는 의무가 따라붙긴 하지만 좋은 책들이 널려 있는 서점에서 양서를 고르는 즐거움에 비취볼 때, 이 의무는 언제나 즐거운 의무일 뿐이다. ◆



컴퓨터 애호가들이 즐겨보는 컴퓨터 관련서적의 신속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ZDNET(왼쪽)와 O'Reilly사이트.

속보성, 신속한 업데이트, 독자들이 찾아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다는 장점, 굳이 가지 않더라도 볼 수 있다는 것 등은 인터넷 매체의 뛰어난 장점이다. 근래에는 푸시(PUSH) 기술, 즉 독자에게 정보가 아예 전송되어 오도록 하는 기술까지 선보이고 있어 정보의 검색은 더더욱 쉬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의 검색, 북마크의 활용 등은 사실 꿈도 꾸지 못하던 일들이다. 모름지기 자료란 책냄새 나는 서가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찾아야 제맛인데 말이다. 내가 대학시절만 하더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대형서점의 원서코너나 도서관에서 찾아보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인터넷과 너무나 친해졌다. 그쪽이 훨씬 빠르고 방대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잡지마다 신문마다 정보통신 섹션을 경쟁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인터넷 추천 사이트를 게재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것도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게다.

흔히 웹진이라 불리는 인터넷 잡지도 흥수를 이루고 있다. 제작비를 적게 들이고도 다수의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유용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더욱이 IMF 한파로 기업의 홍보자금이 줄어든 요즘 값비싼 제작비가 드는 사외보가

이런 웹진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웹진은 정보통신을 주제로 한 것으로 한정되었지만 점차 문화·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웹진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런 흐름은 일반매체나 출판계에도 빠르게 물려와 전망이다. 또 무시해서도 안되는 것이 사실이다. 언제까지 원고지에 적힌 글만 옥고라 하겠는가. MIT 미디어랩의 네그라폰테가 한 말처럼 비트 역시 문화의 일부가 되었음을 우리 출판인들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컴퓨터 잡지사에도 근무하고 있는 나는 매일 수많은 사이트와 잡지를 인터넷으로 구독해 정보와 뉴스를 찾는다. 그 중 많이 들리는 곳은 바로 ZDNET(<http://www.zdnet.com>)이다. 집데이비스는 퍼씨 컴퓨팅, 맥월드 등 컴퓨터 애호가들이 즐겨보는 유명한 잡지 20여 종과 컴퓨터 관련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곳이다. 집데이비스의 ZDNET에서는 모든 잡지의 과월호를 간편히 검색할 수 있음은 물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갖는 속성을 십분 활용하여 신속한 뉴스와 알찬 정보를 시간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다. 인터넷 잡지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방대한 정보의 양과 신속성 말고도 재미 있는 것은 출판사가 컴퓨터 사용의 경험을 살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집데이비스는 PC나 주변기기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공짜나 다름없다. 하지만 집데이비스의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테스트했다는 자체만으로 공신력을 가질 만큼 이 프로그램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때마다 선명하게 집데이비스의 이름이 부각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다른 유명한 컴퓨터서적 출판사인 O'Reilly(<http://www.ora.com>) 역시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서적 검색과 뉴스를 제공한다. O'Reilly도 윈도 95용 웹서버 프로그램인 '웹사이트(WebSite)'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